

## 도착한 미래, 문학을 다시 짓는 문학들

- 권보드래 외 12인 공저 · 오혜진 기획,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민음사, 2018)을 읽고

고지혜\*

우리에게는 잘 전해지지 않고 잘 기억되지 않은  
승리와 변혁의 역사가 있다.  
-리베카 솔닛, 『어둠 속의 희망』

1980년대생 여성이자 한국현대문학 연구자인 나에게 ‘문학사’ 하면 겹쳐지는 두 가지 장면이 있다. 둘 다 비판과 반성, 모색의 자리였는데 그때 그 자리에는 이상한 열기 같은 것이 있었다. 하나는 2012년 푸른역사 아카데미에서 열린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강좌였고, 다른 하나는 2017년 초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연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현대문학사’ 강좌였다. 2012년 강좌에서 한 청중은 문학사가 반드시 다시 쓰일 필요가 있냐는 질문을 했다. 청중석 한쪽에서 숨죽이며 강의를 듣던 나는 어떤 당혹감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꼈다. 문학의 위기나 죽음 등등에 관한 논의는 내가 대학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사그라진 상태였고, 나 역시 문학이 공론장을 주도해야 한다거나 1970~80년대와 같은 권능을 누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당시까지도 내게 있어 한국문학사는 사조사에 다름 아니었으며 내가 상상하는 작가론이나 작품론은 어떤 식으로든 민족주의와 리얼리즘에 결박당해 있었다. 문학사를 ‘과연’

---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다시 쓸 수 있을까. 이미 문학연구자로 살기 시작한 나는 그러한 질문에 ‘감히’ 정면으로 맞설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문학사를 옹호할 수도 없었다. 기왕의 문학사 서술방식 및 인식의 틀로는 이미 ‘지금-여기’의 한국문학(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말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2017년 ‘#문단 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2018년 ‘미투(Metoo)’ 운동까지, 일별하기에도 숨 가쁘게 페미니즘 관련 이슈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5~2016년은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난 시기이자 신경숙 표절 사건과 문학권력 논쟁으로 한국문학(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때이다. 이와 더불어 2016년 무렵부터 페미니즘 서적은 도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되었으며, 이는 『82년생 김지영』이 누적 판매부수 100만부를 돌파한 2018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하며 2017년 초, 앞서 언급한 두 번째 강좌에서 문학사에 관한 질문의 형태를 바꿀 수 있었다. 문학사를 ‘어떻게’ 다시 써야 할까.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현대문학사’의 강좌 내용을 묶은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sup>1)</sup>은 나에게 있어 ‘문학사 이후의 첫 번째 문학사’이다. 따라서 나는 이제야 겨우 도착한 이 책이 어째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문학사’인지를 말하고자 한다.

\*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은 “젊은 독자들이 새롭게 장착한 문제의식과 감수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사를 다시 읽”고(8), ‘성정치’를 바탕으로 한국문학(사)에서 자명한 것으로 승인되어 왔던 기율과 세목을 심문하고자 한다. 이때 이 책이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은 ‘페미니스트 시각’이다. 이 책

1) 이하 같은 책에서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서지 사항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본문의 괄호 안에 쪽수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페미니즘 문학사’가 아니라 ‘페미니스트 시각’을 내세웠다는 것은, 이제까지 “매번 ‘문학’의 최전선에서 ‘문학’ 그 자체를 심문해” 오면서 “제도적이고 미학적인 차원에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유발”(66)해 온 ‘페미니즘 문학’의 존재와 공로를 인정하되,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지적 네트워크와 스펙트럼을 좀 더 넓히기 위함일 것이다.

또한 이 책이 통시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다분히 문학사의 정형화된 서술방식을 의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총 3부로 이루어진 이 책의 1부는 개화기에서 식민지 시기까지, 2부는 해방기부터 1970년대까지, 3부는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를 다루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배치와 흐름이 익숙한 듯하면서도 낯설다는 것이다. 기존의 문학사는 대개 단일한 서술방식으로 문학사 전체를 관통하는데, 이는 문학사를 서술하는 작업 자체가 선별을 통한 재배치, 즉 정전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의 통시적 구성 혹은 시기 구분은 일련의 흐름을 형성하면서도 각각의 글들이 배치되는 데 있어 강한 구속력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예컨대 1부 끝에 자리한 이혜령의 『그녀와 소녀들—일본군 ‘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는 1980년대와 1990년대, 2010년대의 텍스트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다. 문학사의 통상적인 시기 구분에 따르자면 이 글은 책의 후반부에 위치한 이진경의 글 다음 혹은 오혜진의 글 앞에 와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다룬 극문학에서의 남성성을 살펴보고 있는 조서연의 『돌아온 군인들—1950~1970년대의 전쟁 경험과 남성(성)의 드라마』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니 기존의 문학사라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1950년대의 희곡과 2000년대의 영화를 이렇게 함께 다루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구성을 다시 보면, 1부는 여성서사의 탄생과 관련된 맥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권보드레, 심진경, 장영은, 류진희, 이혜령의 글은 상이한 작가나 작품, 대상을 다루면서도 여성인물과 여성작가가 재현되고 서사화되는 데 작동하는 역사적·정치적 조건들을 논구하

고 있기 때문이다. 2부에 실린 글들은 현재 한국문학(사)의 정전들을 재독하며 정전화의 기획과 과정을 꼼꼼히 살핀다. 문학사는 문학전집, 교과서 등과 함께 정전화 작업의 가장 주요한 수단이다. 문학사는 어디까지나 ‘제도로서의 문학’ 안에 위치하며, 그 자체로 권위의 상징인 동시에 교육을 통한 재생산을 전제한다. 문학사에 언급된 작가와 작품은 문학전집이나 교과서에 수록된 경우와 같이 재빠르게 정전화되며, 이렇게 형성된 정전은 문학교육(장), 예컨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현장은 물론 임용고시를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를 통해 거듭 재생산되는 가운데 출판자본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2부에 실린 허윤, 강지윤, 정미지, 김미정의 글은 그간 ‘남성지식인의 내면을 특권화하는 장소’(247)로 기능해왔던 정전들과 이들의 정전화를 가능하게 했던 성정치들 문제 삼음으로써 그러한 정전들의 탈신비화 및 탈정전화를 시도한다. 3부에 실린 조서연, 이진경, 김은하, 오혜진의 글은 문학사 서술의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한국문학(장)의 현재와 가장 긴밀하게 접촉한다. 이 글들은 30년 정도가 지나야만 문학사 서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문학사의 불문율을 가차 없이 깨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는 물론 2010년대의 텍스트도 적극적으로 다루며 현재 한국문학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갱신을 도모한다.

물론 이 책에 실린 글들에서 발견되는 “모종의 공통성과 연속성”(10)은 독자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여성의 읽기와 쓰기가 어떻게 타자화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장영은과 정미지의 글을 겹쳐 읽을 수 있다. 또한 허윤과 조서연의 글을 나란히 놓고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이성애 중심주의의 억압을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작가, 작품, 독자는 물론이고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 문학적인 것 등 이 책에 실린 열세 편의 글들은 기존의 질서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나들며 그동안의 문학사 서술에서 (불)기능했던 지점들을 밝히는 동시에 이러한 구분들을 무화시키고자 한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문학을 심문하며 해체하는 작업은 한 명의 연구

자가 선취하기는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일 것이다. 오목조목 맞춰 이은 조각보의 형상을 떠올려 보자. 저마다의 크기와 색깔을 지니고 있던 조각조각의 천들은 하나로 이어지면서 일정한 질서와 통일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들은 하나의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을 이루는 열세 편의 글들도 그러하다. 이들은 저마다의 방식과 문제의식으로 한국문학(사)의 문학과 정치성을 점검하고 한국문학(사)에 있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상을 모색하는 데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공백이나 분열의 지점을 매끈하게 정리하거나 하나의 결론으로 환원하지 않는 것이 이 책에 실린 글들의 좋은 점이다. 나는 이 책에 나오는 ‘유보의 지점’들을 좋아한다. 예컨대 주세죽이 겪어야 했던 좌절과 고통을 원한 서사로만 결론 내리지 않는 대목(88)에서는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만 읽어 낼 수 있는 ‘변화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페미니스트 연구(자)의 정직하고도 치열한 고민이 드러나는 지점이며 우리는 이를 실마리 삼아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읽고 쓰는 문학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은 진보와 연대의 최전선에서 읽고 쓴다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이 그 자체로 기존 문학사의 서술방식을 심문에 부치고 있음은 거듭 강조될 필요가 있다. 상이한 서술의 관점을 견지하는 문학사일지라도 기존의 문학사들은 공통적으로 ‘선별’이라는 과정을 통한 정전화 작업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남성 지식인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문학의 전통”(345)에 복무해 왔다. 이는 보편을 지향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보편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한 뒤 그러한

권위를 자연화함으로써 그것이 당대의 시대정신이나 미학적 가치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지워버리는 일이다. 그러나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은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 이를 거부한다. 단일한 서술 형식으로 한국문학사를 최대한 매끈하게, 일직선상에서 연결하려는 시도를 이 책은 거부하는 것이다.

문학사 곳곳의 울퉁불퉁한 지점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선별’로 인해 무엇이 배제되어 왔는지를 깨닫게 된다. 감춰지고 왜곡된 것들은 당연히 남성 중심의 서사나 젠더 이분법으로는 충분히 말해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점들을 가시화하고 적극적으로 그 맥락을 파헤치는 이 책의 작업들은 인식론적으로 새로우며 정치적으로는 급진적이고 문학적으로는 ‘낮설게 하기’가 된다. 이제야 “한국문학은 더 많은 텍스트들, 더 많은 가능성들과 조우할 수 있”(176)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은 지금-여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문학사’인 동시에 미래의 문학사에 기록될 만한 ‘한국현대문학사의 페미니스트 모먼트’일 것이다.